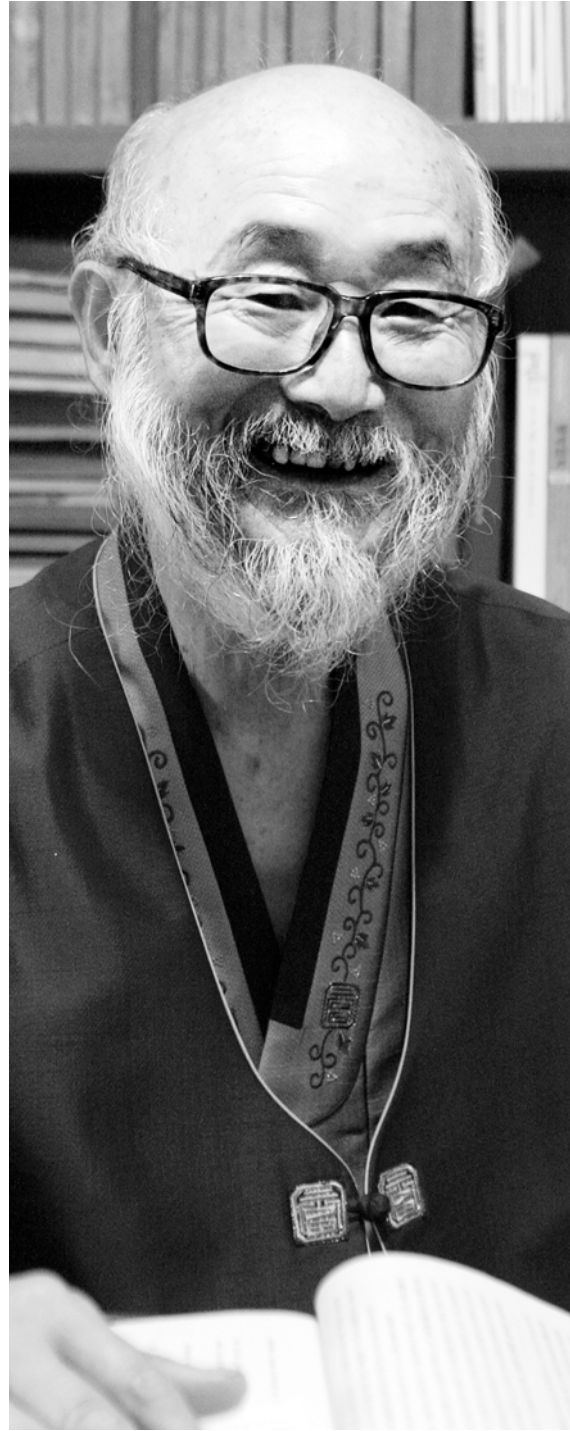


‘무등산 시인’ 범대순 문학과 삶 기린다



“눈이 내리네/ 피아노가
우네/ 옆에 서서 바이올린
이 우네// 무등산에 눈이
내리면/ 거기 있어야 할 사
람/ 거기 없네...” (‘눈이 내
리네’ 중에서)

‘무등산 시인’으로 불렸던 범대순(1930~2014) 시인. 그는 평생 무등산을 보고 자랐고, 무등산을 올랐으며, 무등산을 닮아갔던 시인이다. 1100여 번의 무등산 산행과 160여 번의 서석대 등정은 시인에게 있어 버린 무등의 원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는 죽을 직전까지 무등산을 오르며 무등산을 소재로 시를 썼다. 시인에게 산행은 “자신과 영혼의 육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느” 고산고수(高山高手)의 길이었다. 경험과 지식이 확장되는 영원한 문학적 고행이기도 했다.

전남대 영문과 교수였던 범대순 시인의 1주기(5월 21



유고시집 ‘백년’, 산문집 ‘문림소요(文林逍遙)’, 논평집 ‘범대순 논총’

만큼 문학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 병상에서 시심을 다듬어 형상화한 시들은 이번에 유고시집 ‘백년’에 묶였다. 특히 “버리고 떠나기/ 버리고 안 떠나기/ 안 버리고 떠나기/ 안 버리고 안 떠나기”라고 노래한 시 ‘즈문 가람-법정(法頂)에게’는 죽음을 예감한 고인의 음성이 담겨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산문집 ‘문림소요(文林逍遙)’(전3권)는 총 2000페이지

21일 1주기 맞아 광주 드림아트홀서 추모식·유고 시집 등 출판회

자본주의 비판·간절 서정적 시어 담아 ...영문학자로도 활발한 활동

인)를 맞아 그의 문학과 삶을 기리는 추모식과 유고 시집 발간 기념 출판회가 열린다.

오는 21일 남구 사동 소재 드림아트홀(오후 6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문인협회, 원탁시 등 생전에 고인이 활동했던 단체의 문인들과 학계 인사들, 유족들이 고인의 문학과 생을 기린다. 특히 범대순 시인 유고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한 유고시집 ‘백년’, 산문집 ‘문림소요(文林逍遙)’, 논평집 ‘범대순 논총’(이상 문학들 간)에는 시인의 문학인생을 가능할 수 있는 글들이 망라되어 있다.

광주 출신의 범 시인은 한국적 정서와 동양적 상상력이 내재한 시를 썼다. 가난을 더욱 미천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청빈했던 선인들의 삶과 문화를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인 시어로 담아 내기도 했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삶뿐 아니라 영문학자로서의 삶에도 충실했다. 시를 쓰고 강의하는 틈틈이 시론집 ‘백지와 기계의 시학’ ‘트림의 미학’ 등을 발간, 시의 이론 정립에도 역점을 기울였다.

고인은 폐암 투병 중에도 임종 직전까지 시를 정리할

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고인이 15년간 써온 200여 편의 수상(隨想)이 수록돼 있다. 이 기간은 “무등산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밝힐 만큼 무등산 산행에 ‘미친’ 시기였다. 책의 머리말에서 범 시인은 “이 글은 머리로 쓴 글이 아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썼다”고 고백한다.

‘범대순 논총’은 고인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다른 이들의 논평을 모은 것이다. 김현승, 권일승, 윤삼하, 성찬경, 김우창, 최하림, 황현산, 김성근, 김준태 등 36명이 쓴 시론, 시집평, 단평선과 대담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1930년 광주시 북구 효령동에서 태어난 범 시인은 광주 서중과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테니스 대학 연구 교수를 지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문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저서로 ‘범대순 전집 6권’, 시집 ‘흙인고수 루이의 북’, ‘기승전결’, ‘백지시’, ‘무등산’, 번역서 ‘현대영미시론’ 등을 펴냈고 문예한국 대상, 금호학술상, 영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2680-9426.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시립국악관현악단 ‘풍류’ 공연

21일 광주문예회관 ... ‘진도북춤을 위한 관현악’ 연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광복)이 ‘풍류’를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상영산’과 ‘대풍류’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독주곡으로 연주되는 산조를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합주’로 새롭게 구성해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신명나는 진도북춤과 어우러지는 웅장한 관현악곡 ‘진도북춤을 위한 관현악’이다. 시립국악단

원인 김선제씨의 편곡으로 연주한다. 특히 이번엔 함께 무대에 오르는 진도북춤은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양태유류) 이수자 박병주가 대표로 있는 내드림과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무대는 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로 선미숙, 이지선, 기성희, 방윤수씨가 남도민요 ‘육자배기’와 ‘개고리 타령’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12-53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현 독주회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현(사진) 독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예고와 전남대 예술학과 졸업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을 거쳐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 점수로 마친 김씨는 이탈리아 오바다 국제콩쿠르 1위 없는 2위 입상 등 다양한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또 유학 당시 독일은 물론이고, 폴란드 등에서 연주했으며 슈투트가르트 음대 개교 150주년 기념 음악회와 리게티 에튀드 전국 음악회 초청 연주회를 가졌다.

2010년 귀국 후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



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광신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광주피아노 아카데미, CN 피아노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피아노 학회 연주 분과 연구원도 맡고 있다.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드뷔시의 ‘이미지 I & II’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작품 번호 23’과 ‘소나타 2번 작품번호 36’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 여름학기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광주 YMCA와 함께 6월2일부터 8월2일까지 ‘2015 문화센터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좌는 유아·어린이강좌, 청소년 토요일강좌, 성인예술취미강좌, 이색미술관 체험, 희망미술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여름학기 프로그램에서는 전시기계프로그램으로 김일근 작가의 ‘사라지고 있는 물고기 은어 만들기’, 동

물원 수의사 최충욱의 ‘야생동물이야기’가 새롭게 개설됐다. 폐품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보는 박태규 작가의 ‘도와 줘 꼬마타잔! 친구야 안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에 대해 배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애니메이션 알아보기’ 등 4개 과정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13-718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금의 나는 고향의 강과 산, 사람들에 빛진 결과”

김도수 ‘진피로 간다’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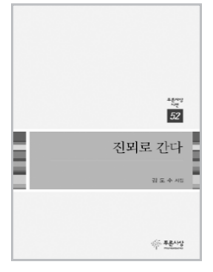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생태적인 공간을 넘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김도수 시인이 ‘진피로 간다’(푸른사상·사진)를 펴냈다. 전북 임실 진피마을

이 고향인 시인은 그곳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추억을 정감어린 시어로 풀어냈다.

“...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 강변 휘젓고 다니며 배웠으니 / 강물 속 헤엄치며 배웠으니 / 나는 오늘도 진피로 간다”(‘진피로 간다’ 중에서)

표제시 ‘진피로 간다’에서 보듯 시인은



면화된 사랑 자체이자 한 편 한 편으로 빛어낸 시이기도 하다.

꾸밈없고 진솔한 언어로 삶과 생명의 진실을 노래한다. 시인에게 고향은 ‘서로를 품어 안으며 사람답게 살았던 삶’의 무대다. 또한 시인의 감성속에 내

김 시인은 “섬진강변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연이 안겨주는 풍요로움이 있었기에 유년기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순전히 고향의 강과 산, 고향 사람들의 삶에 빛진 결과”라고 강조한다.

한편 김 시인은 2006년 ‘사람의 깊이’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산문집 ‘섬진강 푸른 물에 징검다리’를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신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미신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서구 벽진동 대지 230㎡ 매 5억
- 서구 마록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창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평당 15만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독: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해남읍서 대홍사 가는길목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주택4동+캠핑카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주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4100평방미터 (계획관리) ▶면적: 4509평방미터

▶매가: 1억3천만원 ▶매가: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검색 - 고향에 집짓기 - 농촌생활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영이 바위 펜화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